

# '불새 2020', 홍수아 · 이재우 · 서하준 · 박영린 출연 확정

SBS 새 아침드라마...오는 10월 19일 첫방송

16년만의 리메이크...이유진 작가 극본에 '기대'

"30분 미니 형식 제작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

16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SBS 새 아침드라마 '불새 2020'이 홍수아, 이재우, 서하준, 박영린의 출연을 확정했다.

18일 '불새 2020' 측에 따르면 드라마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8시 35분에 첫 방송을 할 예정이다.

"엄마가 바빴다" 후속작이다.

'불새 2020'은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부잣집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경제적 상황이 역전된 후 다시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지난 2004년 방영한 MBC 드라

마 '불새'의 16년만의 리메이크작이다.

지난 2004년에 방영된 '불새'는 이시진, 고(故) 이은주, 문정혁, 정혜영을 중심으로 방송 당시 시청률 30%를 육박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어디서 타는 뽀새 안나요? 내 마음이 불타고 있었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방심해서" 등 유행어와 함께 '불새리안'이라는 팬덤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번 '불새 2020'은 '불새'를 집필했던 이유진 작가가 다시 극본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 복귀에 나선 홍수아는 극 중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제대로 물고 태어난 철부지 부잣집 딸 '이지은' 역을 맡았다.

이지은은 장세훈과의 만남 이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눈부시게 다시 비상하는 불새 같은 여자다.

전작 '달콤한 원수'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았던 이재우는 극 중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흠수저 가구 디자이너 '장세훈' 역을 맡았다.

장세훈은 이지은과의 만남으로 인해 뜨거운 사랑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되면서 그의 인생마저 흔들리게 된다.

서하준은 극 중 성격, 비주얼, 배경까지 모두 갖춘 로얄 금수저 '서정민' 역을 맡았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굳게 닫힌 이지은의 마음을 뒤흔든다. 서하준은 쌍둥이 형제 서정민,



서정민의 1인 2역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위험한 약속', '우아한가'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던 박영린은 극 중 이지은의 친구 '윤미란' 역을 맡았다. 윤미란은 이지은을 향한 그릇된 열등감을 가진 인물로 첫 눈

에 반한 장세훈에게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며 극에 긴장감을 더한다.

'불새 2020' 제작진은 "16년 만에 리메이크된 만큼 내부의 반응 역시 뜨겁다"며 "특히 30분 미니 형식으로 제작돼 속도감 있는 전개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

다.

아울러 '원작 특유의 감성을 완벽하게 살리면서 '불새 2020'만의 색다른 재미를 더해 보는 재미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원작을 능가할 흥수아, 이재우, 서하준, 박영린의 케미 또한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 '히든싱어6', 코로나19 재확산에 방청객 절반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 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JTBC 예능프로그램 '히든싱어 6'도 방청객을 축소했다.

18일 JTBC '히든싱어6' 측은 전날 진행된 녹화에서 기존 보다

절반 이하로 줄인 최소한의 방청객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히든싱어6' 측은 "보다 안전한 녹화를 위해 기존에 약속된 관객 중 절반에게 부득이하게 취소된다는 연락을 보냈다"며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인 사전 선

정 방청객만 참여했다. 제작진도 (방역수칙 등) 신경을 많이 쓰며 녹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히든싱어6' 측은 향후 녹화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매뉴얼 '민간다중시설' 항목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녹화는 거리두기 좌석제 및 발열 체크, 스튜디오 사전 방역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인 2m를 유지한 채 녹화가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관객들은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스튜디오 내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입·퇴장 및 대기시 타인과 2m 이상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히든싱어'는 원조 가수과 모창 가수가 블라인드 뒤에서 노래 대결을 펼치고, 관중단 100명이 진짜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2년 말 파일럿 방송으로 막을 올린 뒤 2013년 시즌1을 시작으로 총 5개 시즌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6은 지난 7일 첫 방송됐다.

## '식스센스', 유재석의 육감 현혹 버라이어티

9월3일 첫 방송



tvN 새 예능물 '식스센스' 가유

재석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다음달 3일 오후 9시 첫 방송되는 '식스센스'는 다섯 명의 멤버와 매주 한 명의 게스트, 총 여섯 명이 이색적인 주제의 장소나 인물들을 찾아 다니며 오감을 뛰어넘은 육감을 발휘해 진짜 속에서 가짜를 찾아내는 '육감 현혹 버라이어티'다.

그간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호흡을 맞춘 유재석과 정철민 PD의 재회작으로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가 고정 멤버로 출연을 확정 지으며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는 '식스센스'를 이끌어갈 MC 유재석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홀로그램

필름을 보는 듯 흐릿하게 보이는 출연진들의 이름과 물음표, 숫자 6은 흥미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유재석의 예리한 눈빛과 '절대 현혹되지 마라'라는 문구는 육감을 총동원해 진짜 같은 가짜를 찾아낼 유재석, 오나라, 전소민, 제시, 미주의 활약에 궁금증을 높인다.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정철민 PD는 "'식스센스'는 제작진이 정교하게 만든 가짜,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진짜 등이 출연진은 물론, 시청자들의 육감까지 현혹시킬 전망"이라며 "매회 출연진들과 함께 진짜 속에서 가짜를 가려내는 즐거운 여정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방탄소년단 제이홉, 취약계층 아동 위해 1억원 기부

'그린노블클럽'의 146번째 멤버 됐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8일 제이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아동을 돕고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제이홉은 "각종 사회문제로 피해를 받는 취약 계층 위기 아동들과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잘 전달됐으

면 좋겠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긴급생계 지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제이홉은 지난 2018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의 146번째 멤버가 됐다.

그해 인재양성 및 환아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후원했고,

지난해 2월 모교 장학금으로 1억원 후원을 하고 같은 해 12월

환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

제이홉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선정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공연업체 스태프들을 위해 멤버들과 함께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제이홉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기억하며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귀한 뜻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원 "음악 핑계로 발달장애 아들 외면"

"가장 후회되는 시간"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고백했다.

김태원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각각 알츠하이머와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87세이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다. 내 인생의 목표이자 롤모델이 아버지였는데, 나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얼마나 해주는 밥만 드신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바라보는 모습이 처음이어서 엄마는 희열을 느끼신다"며 기억을 잃



어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든 신곡의 가사를 소개했다.

또한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생후 8개월 때 진단을 받았다"며 "아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는 음악을 핑계 삼아 뒤에 숨었다. 내게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라고

고백했다.

방송에 출연한 내내는 이 말을 듣고 "김태원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아픈 사람을 못 보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더 못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현아, 9개월만에 컴백...26일 새 디지털 싱글

오는 23일 발표

가수 현아(Hyuna)가 9개월 만에 컴백한다.

18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현아가 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싱글은 지난해 말 선보인 '플라워 샤워 (FLOWER

SHOWER)' 이후 약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피네이션은 지난 17일 공식 SNS를 통해 현아의 신보 발매를 알리는 티저 이미지와 모션 티저를 공개하며 컴백을 알렸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는 현아의 음원 발매 일시를 알리는 문구와 함께 흑백의 화면 속에 마주보고 있는 현아의 얼굴이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 모션 티저에서는 누워 있는 현아의 상반신과 입에 물고 있는 불이 붙은 선낭개비, 눈을 감았다가 뜬 현아의 시선까지 무엇을 암시하는지 궁금증을 불러왔다.

소속사 측은 "현아는 현재 컴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신곡 발매 전까지 다양한 콘셉트를 공개하며 컴백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라고 밝혔다.